

"아- 잔혹한 죽음! 가혹한 죽음!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공주를 돌려다오. 대의명분을 위해 아내를 죽인 못난 나를 데려가다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살아나도록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공주를 돌려다오. 피눈물로 얼룩진 내 슬픈 얼굴을 보아라. 두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아라. 아름답던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운 몸통이 남았구나. 가슴을 쥐어뜯는 나의 고통을 보아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처절한 절규에 누가 아니 눈물을 참을순가. 나랑공주의 주검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호동왕자의 비통한 절규에 극장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된다. 놀라하면서 다정다감한 호동왕자로 완벽하게 분한 이가 바



른 무대를 마련한 것은 이번 공연을 여성국극 부흥의 기회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 말한다.

"50년대 당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기도 했지만 재주만 믿고 멋모르고 무대에 올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극이 '우리 민족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전통종합예술'이라는 신념으로 노래 하나 연기 하나에도 혼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국극이야말로 서양 문화가 관치는 요즘 창극과 관소리의 맥을 현대인에게 맞게 재구성한 소중

한 업(業)의 결과로 여기면 반성하는 마음이 앞선다.

남자역만을 도맡아 하는 김씨는 무대에 오르는 일이 무척 즐겁다. 일단 연기 결정되면 법당에 가 삼배를 드린후 부처님을 응시하며 앉아있었다. 말없이 한동안을 앉아있으면 말은 역의 그림자같은 것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역과 동화되는 자신을 느끼며 은근히 자신감이 솟는다. 마치 부처님이 증명법사라도 되어준 것처럼 무대에 올라도 든든하다.

랩과 마카레나 등 서양 것을 더 좋아하는 신세대들을 국극에 관심가지게 할 수는 없을까. 신세대가 관심가지자 여성국극이 활성화 된다고 믿는 그에게 이것은 늘 머릿속을 차지하는 '화두'이다. 그러나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저 자주 접하게 해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명감이 솟는다.

지난 87년 여성국극단 '진경'을 재개해 소규모나마 해마다 공연을 가졌을 때 잊지않고 찾아와 준 팬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50년대 어린시절 국극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 기억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김경수씨의 국극 재개공연을 보고 달려온 울드팬들이다. '예술의 전당 공연때도 연습하는 수개월간 도시락을 싸다주는 등 도움

## 산문박의 禪

여성국극인 김경수 씨

# "무대에 오르면 배역에 동화"

혼신의 연기 언제나 부처님이 증명 '마음든든' 민족정서 담긴 국극 옛영광 되살리기 안간힘 "신세대로 좋아하도록 창극 현대화 앞장설 터"

로 김경수씨(58·김경수여성국극예술단장).

뛰어난 창(唱)과 무용 그리고 연기력을 지닌 여성국극인들이 모여 공연하는 여성국극단. 지금은 그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지만 1950년대, 혹독한 동족상잔의 전장을 치른 폐허속에서 절망과 고난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국극'은 크나큰 위안거리였다.

"당시 국극 스타들은 지금의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씨 등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다고 봐요. 창 뿐 아니라 무용 연기 등을 섞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극인들은 타고 난 것도 있지만 연습에도 보통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지요."

매혹적인 저음의 창과 미모, 연기력으로 김씨는 데뷔하자마자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18세때인 지난 54년 당시 전국의 극장가를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여성국극단 '임춘영'과 그 일행'에 단원으로 활동했다. 전설적인 국극인 임춘영씨는 바로 그의 이모. 관소리 승무 겸 무 살풀이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경지에 오른 임춘영씨와 같은 피를 타고 난 까닭일까. '무영탑' '낙화유정' '춘향전' 등의 남자역으로 인기를 얻던 그는 임춘영씨

의 감작스런 타계로 64년 자신의 이름을 딴 '김경수와 그 일행'을 창단하고 첫작품으로 '왕자 호동'을 올린다.

그러나 이후 영화, TV 등에 밀려 여성국극은 쇠락의 길을 걷고 김경수씨도 결혼을 하고 평범한 아내의 길을 걸으며 한동안 국극의 길을 접는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9월 26~29일 김경수씨는 그의 예술단과 함께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왕자 호동'을 다시 올렸다. 김진진 김용중 이육천 사명귀씨 등 원로국극인과 함께 김성애씨 등 젊은 국극인들이 출연하고 연계 울린 '왕자 호동'은 왕년의 국극을 안무 국수호씨 등 정쟁한 인물들과 함께 올린 '왕자 호동'은 왕년의 국극을 본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그는 '변변한 스폰서도 없이 이렇게

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미국에 뮤지컬이 있고 중국에 경극이 있고 일본에 다카라즈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성국극'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소재를 옛 설화나 민담 소설 등에서 얻는 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창과 승무 살풀이 등 전통가락과 춤사위가 들어가고 흥겨운 국악리듬에 가사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톤으로 알아듣기 쉬운 누구나 보기만 하면 금방 국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여성국극. 그러나 우리의 전통예술의 여러 분야가 젊은이들에게 점차 각광받는데 비해 여성국극은 아직도 외면속에 놓여 있다. 서양의 오페라나 뮤지컬만이 진짜 예술인줄 알고 우리 것은 하찮고 속되다는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아 섭섭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도 선배들이 국극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

않이 받았습니. 10년넘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팬들이 보다 같이 우리의 전통예술을 발전시키자고 고민하는 동료들이 되었지요." 그들은 김경수씨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줬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의 그이지만 침체해 있는 여성국극을 자기 평생에 제자리에 우뚝 세우고 나아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열려가 늘 초조하게 한다. 그럴 때마다 <숫타니파타>의 다음 경구가 그에게 용기를 준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흩날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경숙 기자

### '생사를 뛰어넘는다'는 뜻은

문 생과 사를 다 뛰어 넘는다 하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둘이 아니라는 뜻 같기도 하고 본래는 생명이 없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좋은 예가 있으면 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박우영·경기 고양시 덕양구)

답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고 합시다. 서울은 시발점이고 부산은 종점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볼 일 보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 온다고 합시다. 그때는 부산이 시발점이고 서울이 종점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시작이고 어디를 끝이라 하겠습니까? 갔으면 오고 오면 또 가고... 그게 살고 죽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본 일초도 쉬지않고 돌고 돌니다. 그러나 나고 죽는게 다 겹닿아 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살다가 나이들어 죽으면 갔다고 하고 태어나면 왔다고 하는데 마음은 어찌 나고 죽는게 있었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둘이 아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깨달아서 '죽었다 살았다'를 아예 벗어나신 분이지요.

### 지 상 상 탐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계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양산원 대법스님에게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개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공부하는 이들이 생사관문을 뚫는다 생사를 뛰어넘는다 하는데 그것은 다 차라니 들고 나는 도리를 본래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이 그걸 모르고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마음 주인공 수행법이란

문 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을 말씀하십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에 놓이고는 수행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천호균·충북 청주시 병영동)

답 원자 속에서 많은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에서는 요생각 조생각, 이런 말 저런 말...그냥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한마음은 광활한 우주를 다 싸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은 자기 혼자만 아니라 전체와 같이 돌아가고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위에게서 나오는 산소를 주고 인간은 탄산가스를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공생·공공·공식·공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에 놓으면 그대로 일체와 더불어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내가 없이, 말하자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 아니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하면 그것도 벌써 이름해서 주인공이지 대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놓는다, 놓았느냐, 놓을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사랑으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그 까닭을 모르겠으니가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렇니다만 그건 물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까지도 다시 놓으라고 합니다.

흔히들 안놓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약한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라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라는 두둑한 배짱으로 몰락 놓고 가십시오.

세상에 믿는다는 말을 할때 무얼 믿는다고 해야 올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믿을건 자기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믿을수 없었습니다.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6·25때 보니까 사람들이 보따리 챙겨서 도망을 가는데 법당의 불상은 그냥 놓아두고 도망을 간단 말씀입니다. 평소애 그렇게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절하던 불상을 왜 놓아두고 달아납니까? 복을 주시는 부처님이라면 모시고 가야할텐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은 자기를 믿고 있다는 얘기였지요? 그렇게 황급해서 도망갈때 그러듯이 죽어도 나, 살어도 나를 믿고 믿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나를 믿지 누구를 믿느냐고 하신다면 수행도, 고의 해방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도 놓고 착도 놓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가십시오.

나를 보고 늘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는데 내 말은 오늘 물어도 같고 내일 물어도 같습니다.

## 알 림

### 제 21차 동학동문회 정기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맑은 가을하늘아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동학동문회 제21차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열릴 계획이오니 각 분야에서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문회에 발전이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회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0년 10월 20일 (陰9月10日) 오후 5시(저녁공양전까지)  
장 소 : 계룡산 동학사 강설전  
연락처 : 동학사 종무소(전화)042-825-2570 (팩스)042-825-6068

특히 각 期대표 스님들은 연락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원들의 연락처를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

## 창 종 공 고

본 종은 교조 석가모니불의 자각각대의 근본 교지와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묘법 연화경과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부처님의 선(禪)·교(敎)·관음정토등 제종의 교의를 통합한 이념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심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불교 정법구현을 실천하여 불국토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불교 정법종을 창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불기 2540년 9월 일

(우) 210-86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691 (구월사)

TEL : 0391-661-4473 · 4474 · 4122 · 4967  
FAX : 0391-661-4967

대한불교 정법종 총무원장 박준업 합장